

광주 광산구의원 윤리특위 회부

광주 광산구의회가 의회 사무국 여직원(공무직)에게 폭언을 일삼은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A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이유서를 제의했다. 제적 의원 15명 중 12명(운영위원장 포함)이 징계 회부 이유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는 오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A의원의 폭언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과 출석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할 뒤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구의원, 의회 사무국 여직원에 폭언 일삼아

사건 조사 방식·출석 요구 여부 등 결정

정확한 사건 경위가 조사되지 않아 2차 본회의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징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의원 12명은 기초의원의 직권 남용 근절과 공무원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윤리특위 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의회 사무국 여직원의 가족이

구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폭언을 한 의원의 공개 사과, 보직 변경(전보 조치), 징계 검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A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2시10분께 '대다수 직원들이 점심시간 자신의 식사를 챙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공무직 여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택 기자

고교생 1년간 강제추행·폭행 당해...경찰 수사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같은 학교 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동폭행·공갈·상해 등)로 모 고교 1학년생 A(16)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광산구 모텔 공터, 골목 등지에서 B(16)군을 지속적으로 폭행·추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B군을 협박,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집단 괴롭힘 정황을 들은 B군의 부모는 광주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예방재단은 지난달 29일 광산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B군을 공동으로 5차례 가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노부부 탄 어선 침수...해경 항구까지 예인

고기잡이 나선 70대 부부가 탄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가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됐다.

1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남쪽 900m 해상에서 윤 모(77) 씨 등 70대 부부가 탄 3급 연안복합 어선의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 경비함정을 보내 예인했다고 밝혔다.

선장 윤 모 씨는 침수가 시작되자 VHF 통신기를 이용해 여수 연안 VTS와 어업정보통신국에 긴급 구조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여수 해경구조대, 돌산 해경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또 하화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2t 어선 선장 김 모 씨도 통신기로 구조요청을 듣고 윤 씨 배에 접근해 해경과 함께 기관실로 들어오는 해수를 배출했다.

이 배는 응급 수리 후 해경 함정에 예인돼 돌산을 근대리 서외항에 입항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에 나서는 선박 관계자는 출항 전 반드시 각종 항해, 통신 장비 및 기관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경안전센터나 긴급 통합 번호인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 어선은 18일 오전 8시께 돌산 근대항에서 출항해 하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냉각수 계통에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수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성 우시장서 소 탈출...1시간40분만 포획

19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황룡면 한 우시장에서 소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119안전센터 구조대는 흥분한 상태로 인근 천변을 휘젓고 다니는 소를 발견했다.

구조대와 우시장 관계자는 힘을 모아 이날 오전 7시46분 출동한지 1시간 40분만에 소를 안전하게 포획해 우시장 측에 인계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나주서 사위 흥기로 찢른 60대 장인 검거

자신의 부부싸움을 말리던 사위를 흥기로 찢른 60대 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18일 사위를 흥기로 찢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6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나주시 한 주택에서 같은 조선족인 사위 B(35) 씨의 배와 엮구리 등을 3차례 흥기로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손에 부상을 입고 응급 처치를 받았다.

신봉우 기자

어린이 물놀이 사망자

6년간 25명...절반 여름철

최근 6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25명이 익사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사고여서 휴가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 보호자의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6년간(2010~2015년) 전국 23개 응급실에 실려온 익사사고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환자 1170명 중 10~12세는 25.9%(303명)로 집계됐다. 계절로 보면 여름이 55.8%(1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봄(3~5월) 18.8%(57명), 가을(9~11월) 15.5%(47명), 겨울(12~2월) 9.9%(30명) 순이다.

어린이 익사사고 환자 중 사망자는 8.3%(25명)로 이들 중 60.0%(15명)가 여름에 화를 입었다.

어린이 익사사고는 보호자가 방지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는 유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함께 물속에 들어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 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빠른 구조 요청과 심폐소생술 실시 등 안전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한다.

바닷가나 강가의 경우 물살이나 파도, 물의 깊이를 먼저 확인하고, 신발이나 물건이 떠내려가면 반드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뉴시스



실전같은 훈련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이경전철 북한산우이역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 참가자들이 입과 코를 가린 채 대피를 하고 있다.

광주시, 국제영화제 지원금 6900만원 환수 법적조치 고려

지난해 중단된 영화제 올해 개최도 불투명

지난해 잠정 중단 결정된 16년 역사의 광주국제영화제가 올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광주시가 지원금 환수에 이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에 2015영화제 당시 지원된 예산 3억원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6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광주시는 최근 조직위의 통장 등에 추심까지 신청하고 반환을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해산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5영화제조직위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기 위해 변호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5년 사용된 예산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2017년 영화제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 환수를 위해 독촉장까지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다"며 "광주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까지 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협의했으며 검찰 등에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영화제에 사용된 예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조직위 측은 사용내역이 담긴 정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원금과 정산 서류와 수천만원의 오차가 발생해 광주시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직위는 응하지 않았다.

2001년 시작된 광주국제영화제는 5년 동안 국·시비를 받았지만 당시 조직위 갈등이 불거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민간주도로 명맥만 유지했다.

이후 지난 2011년 영화제 주제를 '평화'로 정하고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신설, 북한 영화를 상영하며 주목을 받아 광주시 지원까지 이끌어 냈지만 2015년 영화제를 끝으로 또다시 조직위 갈등이 불거져 잠정 중단됐다.

신봉우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